

도덕성 저격의 조건 : 투명성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디지털 파괴와 새로운 윤리문제

예외적인 경우가 없진 않지만, 선진 사회일수록 더 윤리적이라는 명제는 대체로 진실이다. 저널리즘 윤리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환경은 저널리즘 생태계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주로 전화에 의지하던 취재 도구가 CCTV, 핸드폰 녹음과 영상, 카카오톡, 유튜브,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각종 디지털 통신 서비스로 확장되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자주 만들어 낸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도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쉽게 만들어준 디지털 혁명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전통적 매체인 신문과 방송사들이 과점적으로 유지해오던 게이트 키퍼 기능을 빼앗긴 바탕에도 소위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 현상이 자리한다.

디지털 시대 언론신뢰의 핵심: 투명성

코바치와 로젠스탈(Kovach and Rosenstiel, 2014)은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추락한 근본 원인 또한 이 현상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그들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The Elements of Journalism)>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코바치와 로젠스탈은 기

자들에게 기사를 어떠한 경로를 거쳐 취재했는지를 자신이 작성하는 기사 안에서 밝혀 써 주라고 주문한다. 그래야 독자가 기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소세지를 먹게 하려면,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를 보여주라.” 이들이 책에서 투명성 개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다.

미국 유력지들의 투명성 지키기 노력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엘리트 신문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러한 투명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지켜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제이슨 블레이어(Jayson Blair) 기자가 30여 건의 기사를 날조해 회사의 명성을 실추시킨 일이 있는 뒤, 뉴욕타임스는 취재 보도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원칙에 따라 뉴욕타임스는 취재원을 최대한 실명으로 보도한다. 부득이하게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 이 신문은 어떠한 이유로 실명을 밝힐 수 없는지를 예외 없이 기사 안에서 설명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마틴 배런(Martin Baron) 편집인은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보도 조직인 스포트라이트팀이 그 지역 천주교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온 성직자들의 성범죄 행위를 폭로할 수 있도록 지휘했던 언론인이다. 2014년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 책임자로 옮겨간 그는 2017년 칼브 리포트(Kalb Report)라는 TV 프로그램에 뉴욕타임스의 딘 베케이 (Dean, Baquet) 편집인과 함께 출연해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신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배런의 핵심 주장도 투명한 보도로 집약된다. 그는 언론사는 기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기사의 배경(background)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 기사에 사용된 문서나 음성녹음 등도 기사와 함께 제공해 독자가 기사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독자가 어떻게 신문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의 투명성 이해

안타깝지만, 한국 저널리즘 현실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강조하는 투명성 기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거의 모든 주요 매체가 가장 무책임한 익명 수준인 “A씨에 따르면”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과거 “김모씨”, “김 아무개씨” 종류의 익명성에서도 한참 더 나빠졌다. 이는 권력집단의 비리를 파고드는 탐사보도 종류의 기사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한국 신문과 방송 보도에서 기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름이나 정체를 왜 제시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사가 짧아서 공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사가 만들어지는 취재와 편집과정에 그러한 고려가 전혀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자들은 익명취재원으로 가득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가려진 취재원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기사의 진정성을 믿어주기를 희망한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운 접근법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전혀 익명일 필요가 없는 내용들에서도 습관적으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기사가 자주 발견되는 사실이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방어기제로 보이지만, 수용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보도 자세는 아니다. 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취재관행이다.

취재경로의 투명성: 뉴스타파 사례

디지털 세상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기사를 위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점이다. 해킹과 매크로 프로그램의 활용, 수사 당국의 디지털 압수수색 등이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요즘 현실에서 이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홍보대행사인 “뉴스킴” 대표 박수환 씨의 문자파일을 토대로 8회에 걸쳐 박대표와 유력 신문사 기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주로 조선일보의 편집책임자들과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책임자들과의 부적절한 청탁과 향응, 기사거래 내용이 폭로됐다. 기자와 경영진은 모두 실명으로 거론됐고, 같은 내용은 KBS와 MBC 등 방송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에도 보도됐다. 문자에 나타난 부적절한 거래행위는, 그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면, 분명히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다. 이 글은 문자에 등장하는 기자들을 두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뉴스타파>가 언론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드러내 비판하는 기사를 제작한 결정은 미디어 간 상호비평이 활발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뉴스타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 아래 인용문에는 뉴스타파가 기사를 출고하며 제시한 자료의 내용과 습득경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수개월간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취재해 왔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바로 ‘로비스트’ 박수환의 휴대폰 문자 파일이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수환의 휴대폰에 저장됐던 것으로 총 2만 9,534건에 달한다.”

2019년 3월 4일에는 보도된 문자 메시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기자 개개인이 박수환

대표와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교환했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마틴 배런이 강조하는 자료의 공유를 실천한 드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자 대화 자료가 공개된 기자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기자들은 스스로가 했던 부적절한 윤리적 판단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찰자 관점에서 여전히 남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뉴스타파는 3만 건 가까이 되는 문자 파일을 “입수했다”고만 밝혔다. 어떻게 입수했을까? 누군가가 회사로 보내줬을까? 해커를 고용해 파일을 확보했을까? 아니면 박수환 씨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았을까? 수사당국이 압수한 자료를 뉴스타파에 흘려줬을까?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경로라도 독자에게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보도가 갖는 영향력은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비판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뉴스타파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뉴스타파의 정당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저격하는 일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정당하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이 점에서 좀 더 투명한 설명을 수용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기자의 지적 정직성

컬럼비아대학 저널리즘 스쿨의 새뮤얼 프리드먼 (Samuel Friedman) 교수는 2018년 11월 14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기자의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에 대해 강조했다. 그가 “다마스쿠스의 게이걸(Gay Girl In Damascus)” 사례를 소개하며 한 말이다. 프리드먼 교수에 따르면, 다마스쿠스의 게이걸은 전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시리아 내전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러한 필명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의 이야기다. 서방 기자들은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성소수자로 믿고 그가 올리는 정보를 기사에 활용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그가 시리아 당국에 구속됐다는 정보를 포스팅했다. 그러자 기자들은 그의 석방을 다방면으로 탄원하다가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부분에서 프리드먼 교수가 강조하는 내용은, 직업이 기자라면,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기사에 사용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를 포스팅한 인물이 누구인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텍스트가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지, 그러한 환경에서 기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사례다.

한국 언론은 아직 진정한 프로페셔널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파성 요소들도 여전히 강력하게 취재 보도 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기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 마틴 배런이 강조하는 보도 투명성의 생활화다. 이제 한국 독자들도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